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7.(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항공안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장만희, 사무관 곽영필, 주무관 신경 • ☎ (044) 201-4244, 4245, 4246	
보 도 일 시	2017년 11월 8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8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항공안전 관련 첫 공청회 8일 개최... '사망사고 제로화' 업계·전문가·항공종사자 한 자리에, 최초 5년 계획 연내 확정

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(안)」에 대한 관계기관·업계·전문가·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8일(수) 오후 2시에 김포공항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공청회*를 개최한다.

* (주최) 국토교통부 (주관) 한국교통연구원

-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지난 3월 30일 시행된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정책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, 이번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.
- 계획(안)에는 “글로벌 항공안전강국 실현”이라는 비전 아래 ‘사망사고 제로화’ 등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및 미래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항공안전의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대 전략을 정책방향으로 담을 예정이다.
- 6대 전략으로는,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데이터 수집활성화를 위해 비고위성 위규사항에 대한 비처벌 및 기밀보호 등의 제도도입과 국가 안전지표 설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정착시키고,

-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자발적 안전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**항공기 운항안전**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선진국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·유럽 등과의 항공안전협정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헬기 수출을 도모하는 한편, 항공기 고장보고·결함분석·위험분석 등의 기술 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등 **항공기 인증 및 정비체계 선진화**와 할 예정이다.
 - 이와 더불어, **미래 항공교통시스템** 구축을 통해 탄력적인 공역 운영과 수용량 증대로 흐름관리 최적화를 실현하고 국제항공기구(ICAO)의 항공시스템개선계획(ASBU)에 따라 안전항공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,
 -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운송산업에 발맞추기 위해 수요예측 분석을 통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와 역량강화를 위해 ICAO 권고에 따른 능력기반 훈련 및 평가시스템(Competency-Based Training and Assessment) 구축과 (가칭)국립항공전문교육원 설립 등 **항공종사자 양성체계**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.
 - 마지막으로, **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변화 대응력 확보**를 위해 경량·초경량항공기 자격제도 개편, 드론 등 무인항공기 운영기반 조성과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상쇄제도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항공안전 분야의 최상위 계획 수립을 통해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항공안전정책 기반이 조성”될 것이라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작성한 후 항공안전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「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」을 연말까지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체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광영필 사무관(☎ 044-201-42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